

전남·경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5평 방에서 생활하는 사랑이네의 꿈



올해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주택지원 대상자인 사랑이네 가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위어잉~' 해남군에 있는 한 정미소. 이른 새벽부터 굉음을 울리며 버건조기가 돌아간다. 정미소안 컨테이너에서 뒤척이던 6살 사랑이(가명·여)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다. 사랑이네 '육남매'를 괴롭히는 건 굉음만이 아니다.

건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는 사랑이와 마음이(가명·여·3)의 기관지를 괴롭힌다. 기침이 하루도 멈춘 날이 없다. 햇볕이 들지 않은데다 방·난방도 되질 않는다. 그나마 집주인의 갑작스런 퇴거통보에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사랑이네는 인근 외삼촌 댁으로 들어갔다. 59.5㎡(18평) 남짓한 이 집에서 외삼촌 가족과 사랑이네까지 모두 13명이 모여 산다. 방 두 개 달린 작은 집을 누우는 것도 벅하다.

잡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집 건물 외벽에 조립식 패널을 덧대 16.5㎡(5평)짜리 공간을 만들었다. 철거동 몇 개가 패널 지붕을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다. 장판도 깔지 못한 콘크리트 바닥 위로 달랑 침대 하나가 놓여 있다.

하지만, 사랑이네는 흔한 컨테이너 집조차 구할 수 없었다.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있는 사랑이와 지난해 허반신에 큰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마음이의 병원비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00만원짜리 컨테이너는 꿈도 꾸지 못한다.

몇해 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진 아빠, 만삭의 몸을 이끌고 들어 나가 일하는 엄마. 겨울 추위는 버텨냈지만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가 큰 걱정이다. 다음달이면 막내도 태어난다.

장마철 앞둔 해남 6남매 가족 비좁은 패널 건물 거주

후원자 1004명씩 발굴 각각 1억원 모금...교차 지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가 올해도 시작된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전남과 경북 등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화합을 위해 전남도와 경북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동협력 프로젝트다. 국내 저소득 아동들의 안정적인 경제지원을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은 것이다.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004명의 정기후원자를 발굴, 연간 1억원의 일시 후원금 모금에 들어간다. 후원금은 전남·경북간 교차지원을 통해 지역 빈곤가정 아동들의 주택지원사업에 쓰인다. 일명 '천사 보

금자리'다.

지난해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에서 정기후원자 858명을 발굴하고 일시후원금 69건(1375만원)을 모아 화재로 집을 잃었던 보성군 영광이(가명·4)에게 새 보급자리를 선물한 바 있다. <광주일보 2016년 1월 19일자 22면>

전남지역에는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정이 10가구 중 1가구에 달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경북이 전체(102만 7000가구)의 11.7%인 12만 가구로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전남이 전체(65만 가구)의 11.2%인 7

만3000가구나. 전남도와 경북도가 '동서화합 프로젝트'를 통해 정기·일시후원금을 모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아동들에게 '새 집'을 마련하기로 손을 맞잡은 이유다.

전남·경북도 지역 후원자들의 성금의 일부는 양 지역 어린이 문화예술 교류사업에도 쓰인다. 이는 계층·지역·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빈곤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의 정서·심리적 발달을 도와 빈곤문화를 개선하고,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지역간 갈등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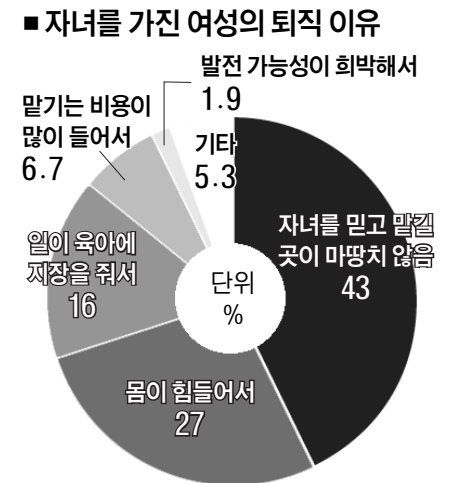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정기후원, 일시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 지역본부(061-274-0041) 또는 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061-286-5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 계좌번호는 농협 301-0081-6148-11(예금주 어린이재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퇴직 여성 43%, 아이 맡길 데 없어 일 관둬

복지부 '2015년 보육실태조사'

직장을 그만둔 여성 10명 중 4명은 아이를 맡고 맡길 곳이 없어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31.4%가 취업 상태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실태조사

이들은 회사를 그만둔 이유로 '자녀를 맡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4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몸이 힘들어서'(27.0%), '일이 육아에 지장을 줘서'(16.0%),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6.7%), '가타'(5.3%), '발견 가능성이 희박해서'(1.9%) 순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77.9%는 추가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자녀가 2명이거나 3명 이상일 때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라는 응답(각각 61.5%, 78.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자녀가 1명일 때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29.9%)라는 대답은 떨어지고, 대신 '영유아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27.8%),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21.3%), '직장생활로 바빠서'(12.0%)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알리지 않는 전업주부가 취업하지 않는 이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로 64.9%는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이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21.5%),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8.3%) 등이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애를 키우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을 조사해보니,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와 어린이집·유치원에 부모가 참여해야 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593가구, 아동 35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춘다방' 문 열어...연륜의 입담은 덤이죠



광주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

광주시 동구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청춘다방'이 문을 열었다.

7일 동구에 따르면 청춘다방은 학동·증신사입구역 1번 출구 지하상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청춘다방은 커피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레몬청, 즉석김밥, 비누, 방향제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청춘다방은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시니어클럽이 운영을 맡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청춘다방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3-881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빨리,
매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